

정책보고서 2008-24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이소정

정경희 이윤경 한정란 유삼현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제출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6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소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정란(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유삼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머 리 말

영국의 사회철학자 라슬렛(Laslett, P.)은 인생을 4기로 구분했다. 제1기는 출생에서부터 학업을 마무리할 때 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의존과 교육 및 훈련'으로 정의된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의무 수행'의 제2기는 취업한 이후부터 퇴직할 때 까지의 시기이며, 제3기는 퇴직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과업은 '자기성취'이다. 마지막으로 제4기는 건강이 쇠약해 진 후 죽음에 이를 때 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의존'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인생을 네 개의 단계와 단계별 과업으로 정리해 보았을 때, 노년기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세 번째 단계이자, 의존적이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책임, 가족과 자녀부양의 의무 등 각종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가장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장식해 볼 수 있는 인생의 찬란한 절정인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는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쇠약한 시기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노년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즉 자아발전이 꽃피는 '제3기 인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매우 미비하다. 굳이 제3기 인생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논하지 않더라도,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더욱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3기 인생에 대한 사회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에 따라 노후를 맞게 된, 그리고 맞게 될 개인과 사회의 각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3기 인생에 대해 준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자아가 꽃피는 제3기 인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의 조성은 이제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업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궁극적으로 온 국민이 성공적으로 제3기 인생을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구축해 나가야 할 사회적 기반 모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기 인생에 대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없으며 본 연구가

초동연구라는 성격으로 인해, 본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 광범위하지만 세 가지 축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3기 인생준비, 또는 보다 일반화된 개념으로 노후준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화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에 제3기 인생준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해 특성 및 문제점등을 심층분석하였다. 셋째, 해외의 관련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기반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욕구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을 수반하는 광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한 연구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며 꾸준한 제도적 노력을 요하는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노력의 첫 발로서 의미를 갖는 동시에 온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도 갖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소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작성되었으며, 원내의 정경희 연구위원, 이윤경 선임연구원, 유삼현 연구원, 그리고 원외에서는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의 한정란 교수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보고서에 자문을 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강인 교수님,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모선희 교수님,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의 기영화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해외사례를 비롯해 여러 자문을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최성재 교수님과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홍선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제3기 인생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화두(話頭)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고자 노력하고 계시며,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시간을 할애해주신 각 관련 단체의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2008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목 차

Abstract	15
요 약	17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7
제2장 이론적 고찰	29
제1절 주요 이슈와 관련 이론 검토	29
제2절 성공적 노화 담론의 함의	36
제3장 중장년층의 제3기 인생준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39
제1절 표본설계 및 응답자 일반적 특성	39
제2절 노후에 대한 인식	45
제3절 노후준비 현황 및 인식	56
제4절 노후준비프로그램 인식 및 현황	76
제5절 제3기 인생준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의 함의	85
제4장 우리나라의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92
제1절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92
제2절 국내 제3기 인생 관련 프로그램 사례	93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함의	155

제5장 외국의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 사례조사	170
제1절 영국	170
제2절 프랑스	185
제3절 호주	196
제4절 일본	209
제5절 미국	222
제6절 해외 사례조사의 함의	24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9
제1절 제3기 인생에 관련된 논점 정리	249
제2절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정책과제	255
참고문헌	279
부 록	299

표 목 차

〈표 3- 1〉	조사대상자의 표본추출 인구 대 조사완료 후 인구 분포 현황	40
〈표 3-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1
〈표 3- 3〉	성·연령별 근무직종	42
〈표 3- 4〉	연령별 학력	43
〈표 3- 5〉	연령·학력별·근무직종별 월수입액	44
〈표 3- 6〉	성·연령별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	45
〈표 3- 7〉	학력·월수입별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	46
〈표 3- 8〉	근무직종 및 거주지역별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	47
〈표 3- 9〉	성·연령별 노후 기대정도	48
〈표 3-10〉	학력·월수입별 노후 기대정도	49
〈표 3-11〉	근무직종 및 거주지역별 노후 기대정도	50
〈표 3-12〉	성·연령별 노후 걱정거리	51
〈표 3-13〉	학력·월수입별 노후 걱정거리	52
〈표 3-14〉	근무직종 및 거주지역별 노후 걱정거리	53
〈표 3-15〉	성·연령별 희망은퇴시기	54
〈표 3-16〉	학력·월수입별 희망은퇴시기	55
〈표 3-17〉	종사직종 및 거주지역별 희망은퇴시기	56
〈표 3-18〉	성·연령별 적합한 노후 준비시기	57
〈표 3-19〉	학력·월수입별 적합한 노후 준비시기	58
〈표 3-20〉	근무직종 및 거주지역별 적합한 노후 준비시기	59
〈표 3-21〉	성·연령별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율 및 충분성	60
〈표 3-22〉	학력·월수입별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율 및 충분성	61
〈표 3-23〉	직업 및 거주지역별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율 및 충분성	62

〈표 3-24〉	성·연령별 노후경제적 준비율	63
〈표 3-25〉	학력·월수입별 노후경제적 준비율	64
〈표 3-26〉	종사직종 및 거주지역별 노후경제적 준비율	65
〈표 3-27〉	성·연령별 노후의 건강준비	66
〈표 3-28〉	학력·월수입별 노후의 건강준비	67
〈표 3-29〉	근무직종 및 거주지역별 노후의 건강준비	68
〈표 3-30〉	성·연령별 노후 건강관리 방법	69
〈표 3-31〉	학력·월수입별 노후 건강관리 방법	69
〈표 3-32〉	직업 및 거주지역별 노후 건강관리 방법	70
〈표 3-33〉	성·연령별 희망하는 노후형태	71
〈표 3-34〉	학력·월수입별 희망하는 노후형태	72
〈표 3-35〉	근무직종·거주지역별 희망하는 노후형태	73
〈표 3-36〉	성·연령별 노후 생활계획 및 준비 못하는 이유	74
〈표 3-37〉	학력·월수입별 노후 생활계획 및 준비 못하는 이유	75
〈표 3-38〉	직업 및 거주지역별 노후 생활계획 및 준비 못하는 이유	76
〈표 3-39〉	성·연령·학력·월수입별 노후 준비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율	77
〈표 3-40〉	근무직종 및 거주지역별 노후 준비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율	78
〈표 3-41〉	성·연령·학력·월수입별 노후 준비 프로그램 받은 경로	79
〈표 3-42〉	직업 및 거주지역별 노후 준비 프로그램 받은 경로	80
〈표 3-43〉	노후준비 프로그램별 세부 내역	81
〈표 3-44〉	노후준비 프로그램 도움정도	81
〈표 3-45〉	성·연령별 향후 교육 참여희망을	82
〈표 3-46〉	학력·월수입별 교육 참여희망을	83
〈표 3-47〉	근무직종·거주지역별 교육 참여희망을	84
〈표 3-48〉	희망 교육내용	84
〈표 4-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차별 교육서비스 제공 계획	95
〈표 4-2〉	공로연수 원내교육 프로그램(2008년)	107

〈표 4-3〉 CSA 교육 내용	110
〈표 4-4〉 전국 노인복지여가시설수	114
〈표 4-5〉 전국 기관별 노인여가시설, 노인대학, 노인교실 시설수	122
〈표 4-6〉 새롬평생대학 2007-2학기 교육과정	124
〈표 4-7〉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세부 교육과정 1학년(2008년)	128
〈표 4-8〉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세부 교육과정 2학년(2008년)	129
〈표 4-9〉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의 내용	132
〈표 4-10〉 자산설계 전문가 프로그램의 강의일정	133
〈표 4-11〉 노인교육 지도자과정 표준교육과정표(2001년)	137
〈표 4-11〉 노인교육 지도자과정 표준교육과정표(2001년) (계속)	138
〈표 4-12〉 e-노후생애설계교육 세부교육과정	141
〈표 4-12〉 e-노후생애설계교육 세부교육과정 (계속)	142
〈표 4-13〉 GLS의 교육의 특징	146
〈표 4-14〉 골드에이지 플랜 캠페인 도서의 주요 내용	149
〈표 4-15〉 국내 프로그램 사례 비교	165
〈표 5-1〉 호주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기본특성	196
〈표 5-2〉 호주 노인의 사회참여 실태	197
〈표 5-3〉 ‘3rd Age’ 코칭아카데미의 개요	206
〈표 5-4〉 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기본특성	211
〈표 5-5〉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노인대상 강좌 현황	219
〈표 5-6〉 버클리대학 은퇴센터의 은퇴준비프로그램 일정	241
〈표 6-1〉 개념 구분	251
〈표 6-2〉 활용가능한 인프라 유형의 장단점 비교	266
〈표 6-3〉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유형	269
〈표 6-4〉 제3기 인생준비 관련법의 주요 내용	277

그림 목 차

[그림 2- 1]	제3기 인생단계에 있어서의 전략적 선택 과정	33
[그림 2- 2]	성공적 노화의 3가지 요소	36
[그림 3- 1]	노후 걱정거리	86
[그림 3- 2]	소득수준별 은퇴 및 일에 대한 태도	88
[그림 3- 3]	학력별 은퇴 및 일에 대한 태도	89
[그림 3- 4]	직업계층별 은퇴 및 일에 대한 태도	89
[그림 4- 1]	PBL 프로그램 구성	96
[그림 4- 2]	SLCA 프로그램 내용	98
[그림 4- 3]	SCLA 체계도	99
[그림 4- 4]	성실 프로그램의 기본모형	103
[그림 4- 5]	성실 프로그램 내용 사례	104
[그림 4- 6]	노후설계서비스 흐름도	112
[그림 4- 7]	해피시니어 프로그램의 구성	119
[그림 4- 8]	e-노후생애설계교육 운영의 체계도	140
[그림 4- 9]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팅 3개월 과정의 기본구성	152
[그림 4-10]	프로그램별 분포도	155
[그림 5- 1]	영국 U3A의 내규	173
[그림 5- 2]	Life Academy 교육 프로그램 개요	178
[그림 5- 3]	Life Academy의 생애설계사 자격증 코스와 생애설계사 석사학위 코스	179
[그림 5- 4]	WRAFS의 조직도	183
[그림 5- 5]	사업흐름도	215
[그림 5- 6]	미국 노인의 연령집단별 인구 및 추계, 1900-2050	223

[그림 5- 7]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계, 2000-2030	223
[그림 5- 8]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준 추이, 1965-2007	224
[그림 5- 9]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분포 추이, 1974-2006	225
[그림 5-10]	미국 노인의 성별 65세, 85세의 기대수명, 1900-2004	227
[그림 6- 1]	생애주기와 제3기 인생준비	253
[그림 6- 2]	파리시 발간 『Le Troisieme(제3기 인생)』의 목차	260
[그림 6- 3]	영국 정부의 “Over 50s”	261
[그림 6- 4]	제3기 인생준비의 콘텐츠 개발 전략	263
[그림 6- 5]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모형	274
[그림 6- 6]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 각 주체의 역할	275

Abstract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for successful preparation of 『the Third Age』

As is defined by Peter Laslett who classified the life course into four stages, 'the third age' is a period of self-fulfillment, independent and free from social and familial responsibilities. Despite such potential, old age is still regarded by most as senile, incompetent stage of life. This partial view on old age should be dismissed because not only has the relative importance of old age in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 medical progress has made the third age healthier than ever.

Thus,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enriching the third age of all people is an essential part of old age well-being and more active policy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make this significant stage of life happier.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policy model for enabling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their third age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important life stage to come. In order to achieve such aim,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considering that it is an initial research on policy measures for the third age, the research starts out by conducting a telephone survey on how Korean adults regard their third age and what they do to prepare for it. The survey results provides a basis for the policy model. Second, case study on domestic programs related to third age is conducted and third, foreign exampl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introduced.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제3기 인생준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
 - 적극적으로 제3기 인생을 설계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면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제3기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실정.
 - 고령화의 문제와 달리 제3기 인생설계는 아직 사회적 화두(話頭)로 부각되지 않음.
- 이처럼 제3기 인생준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급속도의 고령화 현실에 직면해 가장 기본적이고 급박한 제도 정비에 주력해야 했기 때문임.
- 한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기반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욕구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이는 단일한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을 수반하는 광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음.
 -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기반은 최대한 자율성(autonomy)과 다양성(diversity)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적인 제3기 인생설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각 사회주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이것을 조정(coordinate)하는 정부의 균형 잡힌 역할 제시가 중요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의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 첫째, 45-64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제3기 인생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실태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그 함의를 분석함.
 - 둘째, 국내의 제3기 인생준비에 관련된 단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셋째, 해외의 관련 사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아이디어의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

3. 제3기 인생준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의 함의

-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학력·소득·직업계층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노후에 대한 인식과 욕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연령대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과 관심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가령, 생활비용에 대한 걱정은 타 연령대보다 45-4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타 연령대보다 '무위'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50대 이후에는 건강상실, 치매·중풍 등 건강 관련 변인이 노후에 대한 주요 걱정거리로 나타남.
 - 대다수의 국민이 적절한 노후준비의 시기를 30대로 꼽은 점으로부터,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시작 시점은 30대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은 50세에서 54세 사이에 가장 높게(60-64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연령대가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연령집단이며, 따라서 집약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연령층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 국민들의 다수는 61세 이후에 현업에서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퇴 이후 ‘전직과 관련된 일’ 또는 ‘전혀 새로운 일’과 같이 신규 취업을 통한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 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임.
 -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첫째, 비록 현업에서 늦은 은퇴를 원하지만 일단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임.
 - 둘째, 퇴직후 고령자 재취업, 노인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다는 것임.
 - 퇴직 후 일자리를 원하는 집단은 주로 노후 준비가 부족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저소득, 저학력, 기능원·단순노무직 종사자 임.
- 제3기 인생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준비정도가 학력, 직업, 소득 등 소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3기 인생 설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는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의 준비율과 충분성이 높게 나타남.
 - 건강에 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확연한 차이는 없었음.
 - 노후 활동에 대한 준비율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준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어촌지역의 제3기 인생준비 기반 및 프로그램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경우 타 집단과 비교해 경제적 노후준비, 건강준비, 노후 활동준비 등 각 영역에 대한 미준비 이유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선호하는 노후활동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이같은 욕구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월수입 100-400만원 사이의 중산층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미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친목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취미여가활동, 연령이 높을수록 친목활동, 50대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직업관련 일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노후준비에 있어서 '구체적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 발견됨.
- 남성과 여성의 노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해 성별 역할모델이 노후에 대한 인식으로도 연결되고 있음.
-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노후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음.
 - 노후준비 전반에 대한 관심과 준비율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정작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은 타집단에 비해 노후준비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공유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재까지 존재하는 노후준비 프로그램의 내용에 준거해 큰 도움이 못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됨.

4. 국내 사례조사의 함의

- 국내사례를 운영주체, 목적, 대상, 비용, 내용, 운영방법 등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음.

- 운영주체별 특성 :
 -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지 못함. 특히 양질의 교육 자원을 지니고 있는 대학들의 참여가 저조.
- 프로그램의 목적 :
 - 제3기 인생설계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전반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은퇴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다른 이들의 은퇴설계를 도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됨.
- 재원 및 교육비용 :
 - 아직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참여자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통하여 무료 혹은 저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수혜자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소수 프로그램에 불과함.
 - 이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노년기교육과 유사하게 제 3기 인생 설계 프로그램들 역시 무료나 초저가의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은퇴설계의 가장 중요한 직간접적 수혜자가 기업(고용주)과 은퇴자 바로 자신이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 교육내용 및 방법 :
 -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됨.
 - 그러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심리검사 혹은 진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발견됨.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육인원을 30명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은퇴 후 삶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이나 개별화된 교육방법 도입과는 거리가 있음.

－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

- 프로그램 운영방식 면에서는 단선형의 프로그램과 다단계형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은퇴 및 노화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제3기 인생 설계는 단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임. 따라서 이러한 은퇴 및 노화과정의 특징에 비추어 본다면, 일회성이나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

☐ 국내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기업 및 제3섹터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대부분의 제3기 인생준비 교육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인 주제들을 나열해 놓은 형태를 띠고 있음. 또한 특별한 기준과 원칙 없이 각개 약진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3기 인생준비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시각보다는 부분적인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음.

-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재취업이나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은퇴와 제3기 인생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미비함.

5. 해외 사례조사의 함의

☐ 해외 사례는 크게 국가중심형, 민간주도-국가인증형, 민간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충분한 민간의 성장 뒤에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 되고 노인의 자율성과 자생력이 강조 됨.

- ☐ 이 가운데 우리의 경우 국가중심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을 배양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3기 인생준비 프로그램의 모형이 설계되어야 함.

6. 결론 및 정책제언

1. 제3기 인생준비의 콘텐츠 마련

- ☐ 제3기 인생준비의 콘텐츠는 크게 노후준비 교육용 콘텐츠와 일반적인 노후생활 가이드를 위한 콘텐츠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은 다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매체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음.
- ☐ 교육 콘텐츠의 유형 :
- 개개인의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 노인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 ☐ 제3기 인생준비의 콘텐츠는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과 목적이 차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 간에 구분이 모호하며, 대상과 목적보다는 시행 주체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임.
- 우선, 개개인을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실질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함.
 - 첫째, 생애주기 전반 및 생애주기별 과업에 대한 이해
 - 둘째, 재정, 건강, 사회참여, 시간계획, 주거, 관계, 사회복지제도 등 포괄적인 영역의 노후설계 정보 제공
 - 셋째, 노후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소개
 - 둘째,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요구

되는 역량에 관한 특화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함.

- 셋째,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와 같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콘텐츠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학습 및 자아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

- ☐ 노후생활가이드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 및 ‘온라인 정보 포털’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제3기 인생준비 콘텐츠 개발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음
 - 첫째, 자료수집, 둘째, 평가 및 분석, 셋째, 콘텐츠 개발, 넷째, 콘텐츠의 표준화 및 보급, 다섯째, 환류 및 평가

2.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의 제도적 기반 조성

- ☐ 원스탑(One-stop) 정보제공 인프라의 구축 : (가칭)노후생활 정보센터
- ☐ 생애설계 전문가 양성의 표준화
- ☐ 생애설계 상담 및 교육 인프라의 구축
- ☐ 제3기 인생대학의 설립 지원과 노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
- ☐ 제3기 인생준비 허브(Hub) 기구의 설립

3. 제3기 인생준비의 법적, 문화적 기반 조성

- ☐ 제3기 인생준비의 문화를 창출하고 각 주체의 적극적 관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 문화적 기반의 조성